

■ 클릭! 인터넷

광고바다 항해에 필수적인 나침반 - “ 애드채널 ”

홍헌표 / 행정관리부



나른한 가을 오후! 퇴근 후 소주 한 잔을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로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무대리. 무슨 일인지 이사님이 급하게 부르신다.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접수. 아뿔싸!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 경쟁사, 시장상황 자료도 구해야 하고..., 광고비 자료도 구해야 하고..., 이 일을 어찌지?” 무대리는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할까?

무대리와 같은 광고·홍보 실무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국내사이트 애드채널 (www.adchannel.co.kr)을 소개한다.

광고데이터가 가득한 사이트

애드채널은 KADD가 1998년 12월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KADD는 국내 4대매체의 광고비, 광고량을 조사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는 광고비와 광고량 자료, CI&BI 자료, 광고인, 광고관련업계, 각종 국내외 광고물 자료가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광고비 자료는 기간별, 광고주별, 대행사별, 매체별로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CI&BI 및 캐릭터디자인 자료는 세계 최고를 자랑할 정도로 방대하고 다양하다. CI&BI 개발 및 캐릭터 개발을 추진중인 기업은 이곳을 이용하여 유사 디자인의 유무를 체크하거나 자료를 이용하면 작업이 수월해진다.



또한 광고인명, 광고회사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간단한 프로필과 소개를 볼 수도 있다. 이곳에 링크되어 있는 스캔디비와 베이스네트를 방문하면 최신 국내외 광고물 데이터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애드채널은 애드 데이터, 크리에이티브, 애드진, 기타, 인트로 등 5개의 큰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애드 데이터 채널에는 광고인명록, 광고관련업계, 매체요금, 데이터뱅크, 명사칼럼, 구인구직 등 최신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채널에는 광고수상작품, 연감, CI&BI, 캐릭터디자인, 인터넷광고, 학생작품 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애드진 채널에는 KAA저널, KAAA협회보, 월간 피오피사인 등 광고관련업계지가 링크되어 있으며, 기타 채널과 인트로 채널에는 KADD BBS와 관련단체의 홈페이지, KADD의 자

회사 등이 링크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애티라는 캐릭터 안내자가 있어 손쉽게 찾고자 하는 정보에 액세스가 가능하며, 원색을 피해 파스텔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눈에 피로감을 덜 주는 것도 이 사이트의 특징이다.

활성화된 BBS

이 사이트는 BBS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열린광장에는 인터넷판 벵룩시장이 있고, 공개자료실과 광고포럼에는 풍부가 정보가 쏟아진다. 또한 휴식공간에는 재테크, 쇼핑, 레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인터넷 바둑이 개설되어 있다. 바쁜 업무에 지친 이들은 드라이브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들르면 잠시나마 머리를 식힐 수 있다.

애드채널 BBS 기능 가운데 최고의 장점이라면 뉴스클리핑 기능을 꼽을 수 있다. 특수로봇이 수시로 국내외 신문, 통신회사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가져오면 오퍼레이터가 여과, 수정, 가공하여 바로 BBS에 자료가 올려지게 된다. 야후나 심마니와 같은 검색엔진에서의 검색, 신문사 사이트의 질의어 검색을 통했을 경우보다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인터넷은 '바다'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바다로 향하는 네티즌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해도가 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검색엔진 하나를 믿고 난항을 거듭하던 사람들은 애드채널이라는 나침반을 북마크하면 더욱 효과적인 인터넷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